

# 번식돈의 사양관리



이 귀 남  
〈(주)송원축산 농장장〉

“고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을 하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돼지를 사육한다는 게 해가 갈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직접 사양해 보지 못한 사람은 느껴보지 못했으리라 믿는다.

번식돈을 가꾸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복당 생산두수를 높여 비육돈 생산 원가를 낮춘 (불황의 폭을 줄이는 일)다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가끔, 번식모돈 30-50두 규모(가족단위)의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의 양돈도 가족단위 양돈이 되어 더욱 주인한테 사랑받는 돼지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사람은 돼지한테 만큼은 무조건 베풀어야 할 것이다.

돼지를 자주보며 느끼는 가운데 돼지가 대화 가능할 것이며 돼지와 대화하는 가운데 관리자의 돼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원인을 모르고 무조건 치료하는 관리자와 원인을 미연에 알고 예방하는 관리자의 차이란 양돈업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흔히들 기업화 농장에서는 질병이나 사양관리면에서 비법이 있어 돼지를 잘 키우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비법은 무슨 비법, 양돈서적 한 권을 보더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

꼬집어 돼지를 잘 키우는 비법이라면 아마도 월간 양돈지 1권으로도 족할 것이다. 사양, 질병, 방역, 위생 분야별로 가장 이상적으로 다루어진 양돈지라 이것만 보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학계, 업계 선배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겠다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미력하나마 번식돈을 관리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서술코자 한다.

돼지를 키우다 보면 흔히들 조발성하리(대장균증)란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물론 전염병에

의한 설사도 있겠으나, 번식모돈 관리를 빈틈없이 했다면 조발성 하리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돈사 순찰을 나갔더니 분만사 현황판에 조발성 하리란 단어를 준비하게 써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약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7일 이내 설사하니까 불가항력이다.)에 실망했다. 좀더 번식모돈 사양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처럼 조발성 하리란 결과를 잉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첫째 :** 조발성 하리를 줄이려면 번식돈의 사양관리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임신돈의 분만사내 입식은 2주 전에 하고 있는가? (1주일은 환경에 적응, 1주일은 분만사 대장균에 의한 면역)

② 물론 분만사 세척 소독은 완벽했는가?

③ 계획생산에 의한 최소한 all in-all out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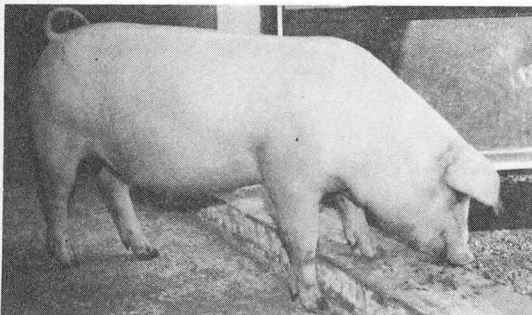
④ 임신돈 입식전에 임신돈에 묻은 돈분 한점이라도 깨끗이 부러쉬로 세척하고 살충 및 살균 소독후 입식시켰는지?

⑤ 분만 7일전부터 분만당일 절식, 분만후 7일까지 번식돈 사료조절은 해 주었는가?

⑥ 특히 초산돈의 분만사내 대장균에 의한 면역성을 키워 주었는가?

위의 6가지를 지켜주고 초유를 충분히 급여하고 보온만 잘 시켰다면 조발성 하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 번식돈 기록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 모든 돼지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한 일령에 정확한 양을 접종해 주는 것이 중요

기록없이 개체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없이 싸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모든 1두당 개체 능력을 기록하여 항상 분석, 검토해 능력이 저조한 번식돈은 과감히 도태해야 할 것이다. 1만두 규모의 양돈장, 2만두 규모의 양돈장하고 두수만 많이 확보하는게 자량이 될 수 없고 얼마만큼 능력이 우수한 번식 돼지를 선별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양돈장의 성패는 좌우될 것이다. 모 기업 양돈장에 근무할때, 모돈과 자돈 백신을 책임지고 예방접종할 때다. 35일령의 자돈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다가 3복중 10여두를 폐사시킨 일이 생각난다. 당시 예방접종 대장 및 개체기록이 없었다면 그 후 그 모돈이 다시 분만했을때 또 다시 자돈에 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고 폐사시켰을 것이다. 처음 한 마리에 백신을 접종하려니까 그대로 죽는 것을 보았다. 왜 죽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시술과정에서 오는 쇼크사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이처럼 예방접종 대장개체 기록이 없었던들 분명 실수를 반복했을 것이다.

**세째 :** 백신 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일령에 접종을 해 주어야 하겠다.

물론 자기농장의 모돈·자돈의 항체가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을 짰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문제는 시술자의 자질 문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백신이라 할지라도 시술자의 책임있는 일, 즉 주인의식을 가지고 백신접종에 임하지 않으면 번식에 큰 차질이 올 것이며 백신 보관방법은 백신 설명서에 준하여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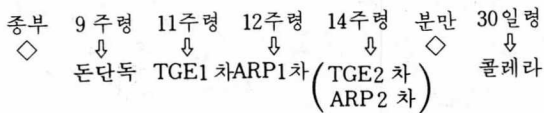
지켜야 할 것이다.

[예방접종 프로그램]

1) 종모돈(씨수돼지) : 봄 - 3월에는 돈단독 · 콜레라, 4월에는 일본뇌염 1~2차 완료. 가을 - 10월에는 돈단독 · 콜레라를 접종한다.

\* 3월과 9월 기생충약 투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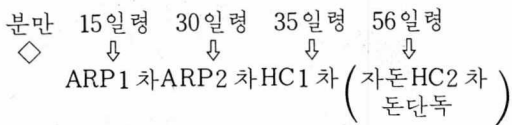
2) 증빈돈(씨암돼지)



\*매 분만 14일 전에 구충제 투여.

\*돼지 일본뇌염은 4월 이전에 증빈돈·종모돈·후보돈 전군에 1·2차(4주간격) 실시한다. (단 임신 25일령 이후로부터 실시한다. 임신후기는 접종을 피한다. 누락분은 5월 이전에 실시한다.)

3) 자돈(새끼돼지) :



\*자돈 HC 1차는 인근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초유전 백신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돈 구충은 자돈사 전출과 동시에 실시한다.

4) 후보돈(암수) : 선발 1주후부터 뇌염 1차(콜레라, 돈단독), 뇌염 2차 순으로 접종하되 종부

\* 4주 간격으로 접종

2주전에 완료시킨다.

네째 : 번식돈의 개체과약과 관리상의 체크사항.

① 종부돈사나 분만돈사 관리자가 자주 바뀌지는 않는지?

② 용돈은 매일 한번씩 손질을 해주고 있는지?

③ 종부시 모돈의 체격을 고려하여 용돈을 선정하는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④ 돈아먹이기(양질사료)는 하고 있는가?

⑤ 번식돈 사료급여는 돈사 책임자가 급여하고 있는가?

⑥ 놀고 먹는 돼지(공태돈)는 없는지?

⑦ 병돈을 조기 발견·조기 치료하고 있는지?

⑧ 너무 야윈 돼지나 너무 과비한 돼지는 없는지?

⑨ 지나친 합사를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합사는 되도록이면 넓은 곳에서 지켜야 할 것이다.)

⑩ 재발은 최소한 2차에서 찾아 불임돈을 유발시키지 말것.

⑪ 포유모돈의 이유시 지나친 체중감소로 종부채귀일령이 늦어지지 않는가?

⑫ 피부병(특히 개선충구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⑬ 번식돈사 청소는 빗자루로 쓸고 있는지?

⑭ 부식토 및 청초급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⑮ 자칫 소홀하기 쉬운 번식사 세척은 최소한 빈 돈방이 있을 때마다 양젓물 세척후 생석회로 코팅하고 있는지?

끝으로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부지런한 관리자가 되어 주위환경 정리 및 날씨가 맑은 날은 돈방문을 활짝 열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겠고 오후 일찍 문을 닫아 보온에도 신경을 써 주어야 할 때다.

특히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돼지한테 스캔들이 많았던 것 같다. 돈가상승, 뜻하지 않은 전염병 위장염의 발병으로 번식돈의 체력이 감소된만큼, 올 한 해도 건강한 자돈생산을 기약하려면 각종 미네랄, 광물질이나 광범위 항생제 투여로 건강한 번식모돈을 우선 가꾸어야 할 것이다. □